

3대 발제문에 대한 토론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용모

첫 번째 발제인 배덕효 교수님의 4대강 사업의 조사위원회 활동 결과-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추진경과 및 수행계획-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재 이 발제문에 나온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은 4대강사업의 평가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계획에 대해서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말하면 첫째, 너무 평가계획을 평면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계획수립단계이어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평면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점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보다 속도감있게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을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다 빠른 시간내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국가예산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하천복원 및 관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너무 4대강 추진계획과 별다름이 없는 거의 비슷한 사항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앞서 얘기한 사항과 연관되지만 다시 말하면 이제 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가장 문제가 높은 사항에 대해 중점검토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축소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따라서 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중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논란이 재발될 우려가 많으므로 참여를 반대한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위원회차원에서 논의를 많이 하면 간극이 좁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 발제인 김승 박사님의 4대강사업 이후의 물관리 전망과 비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 물관리체제 등의 대안 검토 등이 대부분 내용을 공감하는 내용이다.

특히 '비전과 전략방향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과 '4대강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현재의 중앙부처 위주의 물관리체제보다 지

방정부 위주의 유역관리체계가 적절할 것이다'라는 점이다. 이 말을 다시 살펴보면 중앙정부위주의 물관리체제는 한계가 있고,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4대강사업이 방향을 잘못 설정하여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지방정부 위주의 유역관리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유역관리체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분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는 방향설정과 전략 수립 정도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집행을 위주로, 거기에 통합된 방향으로 집행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유역체제로 나아가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한번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력체제 유지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발제인 이현정 박사님의 4대강의 미래와 재자연화에 대한 의견은 내용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 다만 재자연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독일권 등에서 사용하고 있고, 좋은 용어라고 보는데, 그러나 내 개인의견으로는 사실상 4대강은 재자연화를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본다. 즉 복원이라는 용어가 적합할 정도로 하천의 전체구간에 인공적인 사업이 실시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재자연화라는 용어보다 현 하천의 특성을 보아서는 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